

산재근로자가 말하는 안전



취재 | 연습기 기자 · 취재지원 :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안전의 적은 바로 '빨리빨리'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토요일 정오. 땀이 멈추질 않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남성들이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테니스 코트를 누비고 있다. 쉽지가 않다. 테니스 공의 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수들의 탄식과 환호도 연이어 교차된다. 이때 한 선수가 강력한 스매시를 선보이자 상대 선수가 미처 공을 받아내지 못한다. 몇짝은 웃음을 띠며 공을 주우러 가는 선수의 뒤로 긴 줄 두 개가 코트에 그려진다. 이 줄은 이 선수가 타고 있는 휠체어 바퀴가 그린 줄이다. 그제야 이 선수가 휠체어를 탄 장애우임을 알게 된다. 동시에 발을 쓰지 않음에도 이런 스피드와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든다. 그는 현재 시흥시장애인테니스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오상환 씨다.

성급한 일처리가 화를 불러...

오상환씨가 사고를 당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4년 4월이다. 당시 그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K자동차회사 정비부에서 근무했다. 자동차를 좋아했기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 역시 맡은 바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그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의 작업은 사고로 입고된 덤프트럭을 분해해 수리를 한 후 다시 조립을 하는 일이었다. 늘 하는 일이었기에 동료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재빠르게 덤프트럭의 분해를 끝냈다. 이어 다음 공정인 부품수리를 하기 위해서 분해한 각 부품들을 수리 작업장으로 옮겨야 했다. 이를 위해 오 씨는 지게차를 빌리러 배차소에 갔다.

하지만 몇 대 안되는 지게차는 이미 예약이 밀려 있었고 자신의 차레가 올 때까지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오 씨는 동료들과 상의해 지게차 대용으로 쓸 리어카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 몇 시간을 기다려 지게차를 쓰지엔 작업이 너무 밀려있었기 때문이다.

전문 수리공인 오 씨와 동료들은 폐바퀴와 철판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리어카를 하나 만들어 냈고, 그 위에 분해한 덤프트럭 부품을 가득 싣고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채 10미터도 못가 리어카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높이 쌓여있었던 철제 부품들은 오 씨에게 쏟아져 내렸



산재근로자 오상환씨

안전의 중요성 뒤늦게 깨달아...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하지만 이 빨리빨리를 외치며 성급하게 일을 한다고 생산성이 크게 좋아질까요? 적어도 제 생각은 아닙니다. 빨리빨리로 인해 늘어나는 것은 위험성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사고가 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업장 아니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리가 필요한 분야는 오직 '안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전'만이 우리 사업장에 빨리빨리 정착되어야 할 필수요소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다. 온 몸에 찢어질듯 한 고통이 느껴지며 오 씨는 점차 의식을 잃어갔다.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되다

오 씨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몸 전체적으로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으나 허리 밑으로는 감각이 없었다. 의사는 곧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으나 그는 자신이 쉽사리 회복될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마음에 안전을 무시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한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수없이 자책하고 후회했다.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을 그는 병원에서 보냈다. 그때서야 의사는 남은 평생을 하반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다.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여주고 싶었던 의사의 배려였다. 오 씨는 의사의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의사가 의도했던 것처럼 그는 4개월의 시간을 병원에 있으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후회도 충분히 했으며 반성도 충분히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숙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코트를 누비는 테니스선수로 '우뚝'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우선 그는 전부터 배우고 싶었으나 회사생활로 인해 배우기 힘들었던 컴퓨터분야를 배우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몰두해야만 빨리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종 컴퓨터 강좌를 섭렵하며 컴퓨터 관련 지식을 넓혀 나갔다.

그러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 살이 찌기 시작했다. 이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그는 장애인 테니스를 알게 됐고, 휠체어를 타고서도 정상인 못지않게 코트를 누비며 라켓을 휘두르는 모습에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이후 그는 각종 국내외 장애인테니스 대회를 석권하며 유명 장애인 테니스 선수로 우뚝 섰으며, 현재는 시흥시장애인테니스협회 사무국장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고통의 눈물을 곁은 땀방울로 변화시킨 그의 열정 앞에서 산업재해의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었다. ☺